

4번 낙선, 인고의 세월 16년 이영규가 5번째 도전합니다

출생 충청남도 서천

학력 공주사대부고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경력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충청남도, 대전시청, 서천군청 근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독일연방법무부 파견검사(독일통일연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북한법연구)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대한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미용사회 대전서구지회 자문변호사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법률고문
대전시개인택시조합 고문변호사
서구어린이집연합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교총 교원옹호변호인단 위원
10여개 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

이영규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5 (도마동)
Tel 042)525-0415 Fax 042)532-0415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구갑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이번에는

바꿔자!

2 이영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구갑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2	미래통합당	이영규	남	1960.08.20. (59세)	변호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782,052	176,271	605,781	해당없음	재산신고사항 없음	육군 소위 (복무만료)	장남:해군(해병대) 병장(만기)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93,841	0	0	해당자료 없음
후보자	91,741	0	0	
배우자	2,100	0	0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기다림 준비 그리고 다짐

정치입문 16년,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착실히 준비하여 다시 평가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 기다림, 준비, 그리고 또 다시 다짐!

지난 16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보았고,
변화의 미래를 열어갈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림과 준비를 마친
이영규의 새로운 약속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바꾸자
2 이영규

행정고시, 사법시험 합격 대전 부시장 역임

이영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행정고시, 사법시험 양과에 합격하여 검사로 수석으로 임관해 늘 '수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파였습니다.

이영규는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마라톤 풀 코스 및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완주할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인 그는 지금도 틈만 나면 가족과 함께하는 늘 가족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세일즈맨 부시장 발로 뛰는 이영규

이영규는 발로 뛰었습니다

부시장 재임 중 국책사업 유치와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곳곳을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이영규는 허례허식을 버렸습니다

각종 행사의 연설문을 부하직원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보고를 과감하게 구두보고로 대체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서민 변호사 이영규

이영규는 대전을 사랑합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3번이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대전에서 개업한,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영규는 서민의 친구입니다

지난 16년간 개인택시조합, 서구노인회, 대전상이군경회, 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교총, 서구미용사회 등의 자문변호사를 맡아 회원의 권익을 옹호한 서민의 친구입니다.

이영규는 대전을 사랑합니다

구봉고, 신계중, 도마중, 변동중, 느리울초, 선암초 등의 학폭위원으로서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 소신 검사 이영규

그는 검사시절 일간 신문에 “송두윳을 당장 구속하라”는 칼럼을 발표하여 법조계는 물론 뜻 있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좌파인사 송두윳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자 파면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사에 수석으로 임관한 사람이 장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시론



李 映 珪
서울지검 조사부 부부장검사

최근 재독학자 송두윳(59)씨의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송두윳씨는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일부에서 그에 대한 선처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그것이 부당한 이유는 이렇다.

法 형평성·일관성 해쳐

첫째, 형평성 및 범법행의 일관성에 어긋난다. 그동안 송씨보다 훨씬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대체로 구속해왔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 총련 간부들의 행위를 보라. 송씨의 범죄 혐의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런데 한총련 기입자 등 다른 국보법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하면서 송씨만 불구속수사하거나 공소보류한다면 누가 법이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된다고 믿을 것인가?
둘째, 선처를 하려면 그럴 만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수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든지,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다른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경우 등이다. 송씨에게는 그런 아무런 사정이 없다. 그는 과거 김영환씨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김영환씨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구성

를 사람을 외국인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가? 2000년 4월 무렵 필자가 구속 기소한 사건 중에 우리 동료인 미국시민권자가 있었다. 혐의 요지는 국내에서 김정일 장양 해자를 발간하고, 이 문제를 북한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밀입북한 다음, 다시 남한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당시 미국 국무부에서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그 사람의 처리방향을 묻거나 선처 가능성을 타진한 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칫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마찰 운운하는 것은 사

송두윳씨 당장 구속하라

대주위적 발상이거나 전상을 호도하려는 전과가 아닐까 한다.
셋째, 시대상황과 범법정도가 변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국보법 위반 사범은 대부분 구속수사해 왔다. 지금이 그때보다 시대상황이 나아졌는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최근 북핵위기 등으로 더욱 악화됐다. 6·15공동선언 무렵엔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안감사들조차도 정면으로 국보법 위반 사범 처리 문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너무 해이해진 안보 의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시대상황이나 범법정도가 결코 송씨 선처를 가능

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다. 다섯째, 공안사범이므로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 맞다.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안사범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집권자나 검찰의 개인적 성향이나 '코드'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아니다. 요컨대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가 정

국내 연계세력도 수사해야

치적 고려의 기준이다. 황장엽씨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황장엽씨는 북한에서의 행적만을 놓고 보면 불명 입증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가 탈북해 남한으로 귀순함으로써 우리 국익에 기여한 바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송두윳씨가 우리 국익에 무슨 기여를 했단 말인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히 다른 검사기 원기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일검사의 소신만 믿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북한법을 연구하고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공안부에서 공안사건을 처리해본 검사로서, 요 며칠 사이 동료 검사와 선배 검사 10여명에게 물어보았다. 모두가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공소보류가 부당함은 물론이고, 불구속기소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 당연 구속사안임은 물론, 국내 연계세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



의 2020년을 '소상공인 원년'으로

-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기준 현실화, 배달앱 시장독점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의 청년이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 '조국방지법'으로 희망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전용교실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보육지원료 현실화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각종 부담금을 없애겠습니다.

의 또 하나의 가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을 마련하겠습니다.
- 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펫시터도입, 동물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거래표준계약서, 이력제를 도입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전환으로 내 삶을 바꾸는 선택 이제는 이영규입니다

**이영규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20년 장기집권 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중요합니다!**

☞ 서대전 나들목(IC)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 기존 2차선의 진출입로를 각 3차선으로 확장
- 원활한 출퇴근로 확보, 쾌적한 주말나들이 보장
- 서대전C~두계3가 확장공사와 연계한 최적의 교통여건 조성

☞ 도안대로 개통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 원양마을 1단지에서 목원대까지 1.9km 구간
- 유성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도로 확보
- 도안지구 2·3단계 개발 촉진

☞ 장태산, 노루벌 일원에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장태산 휴양림 일원을 총괄한 관광진흥 마스터플랜 수립
- 힐링 테마공원 조성(노루벌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출퇴근시 교통체증 극심
- 도안동로를 8~10차선 도로로 확장
- 가수원, 관저, 도안동 주민들의 교통편의 극대화

☞ 관저5지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권(6, 8, 9구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 기존 학교 등하교시 대로횡단으로 사고위험 증가
- 학교를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 아파트 생활권 참여형 교육 지원체제 구축

☞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도마역 - 용문역을 연결하는 지선 설치
- 도마동, 변동, 내동, 가장동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대
- 환경 친화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